

비안도 섬 마을 활력 넘쳐

도선 운항개시 1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현장 방문 대표적 고충민원 해결 사례, 후속조치 필요사항 점검

군산시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권태성)이 육도면 비안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적 고충민원 해결사례인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 이후 주민들의 달라진 삶의 현장을 살피고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다.

비안도 도선운항 고충민원은 지난 2008년부터 비안도 여객선중단으로 바다갯길 단절로 주민불편이 지속돼 시에서 지난 2010년부터 비안도 도선운항 계획을 추진했지만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및 '어업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민선7기를 맞아 군산·부안 자치단체장의 상생과 대통합의 의견을 교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민원중재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 비안도 도선 고충민원 중재로 도선운항의 길이 열렸다. 이후 시는 도선간조 및 도선편하 취득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

난 2019년 12월 본격적인 도선운항을 시작해 육지 왕래에 불편을 겪고 있던 비안도·두리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했다. 비안두리호 도선취항 이후 1일 30여명이 도선을 이용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코로나9 상황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권태성)이 주민들의 달라진 삶의 현장을 살피고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육도면 비안도 현장을 방문했다.

에서도 지난 11월말 기준 총 이용객 8,656(주민 5,765, 외지인 2,891)명이 비안도를 찾아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선취항 이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에 2019년도 '비안도 선정에 이어 금년도 '두리도'가 선정되며 청년어업인 8명이 비안도에 새롭게 정착하는 등 침체됐던 비안·두리도에 새로운 변화와 활기가 넘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주민공동체인 재보선창변영회가 전북도 예비마을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산 재보선창변영회, 전북도 예비마을기업 선정

군산시는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주민공동체인 재보선창변영회가 전북도 예비마을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별 제품개발, 컨설팅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 '재보선창변영회'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공동체로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아박을 활용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쌀, 쌀기, 블루베리를 조합해 에너지바를 제작하고 있다. /군산=한경봉기자

재보선창 마을기업은 내년 1~2월에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품평회를 진행하는 한편 3월에는 본격적인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군산 재보스토리 1899'에는 수제맥주 양조장 및 체험장이 오는 1월말 준공될 예정이며, 마을기업 주력상품인 재보선창 에너지바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마을기업 설립과 함께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기업 맞춤형 쌀 확대 공급

2만3000톤... 420억 경제 효과

익산시가 내년에 기업 맞춤형 쌀을 확대 공급하기로 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8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 맞춤형 쌀 원료곡 2만3,000톤을 생산해 C1(췌하림, 본아이에프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3% 2,150톤 증가한 물량으로 42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기업체 등과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공급량 1만4,738톤에서 지난해 1만7,100톤, 올해 2만1,800톤, 내년 2만2,950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2016년 처음으로 C1에 쌀 공급을 시작한 이래로 4년 만에 C1 쌀 공급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

움하고 있는 (췌)하림의 즉석밥 원료곡을 전량 공급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 즉 식품 메이커인 본아이에프(본췌, 본도사탁)에 탐마루 쌀을 공급하는 등 지역 쌀 판로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대기업에서 극찬한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인 재배 시작부터 남쪽까지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생산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품종을 지정해 품종순임을 최소화하고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포장(품질)심사단을 운영하는 등 최상의 고품질 원료곡을 생산해 지역 쌀 품질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사-경남기업, '제2정수장' 부지 매매 계약

군산시가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28일 (췌)경남기업과 413억 1,300만원에 제2정수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5일 일반 공개경쟁 매각 결과 최고가 낙찰자인 (췌)경남기업이 선정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제2정수장 부지는 총28필지로 부

지면적 3만3,203㎡, 건물 16개동으로 당초 공개매각 예정금액은 205억원이었으나 개찰결과 413억1,300만원을 낙찰가격으로 제시한 (췌)경남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진행됐다.

제2정수장 부지는 지난 2014년부터 매각을 진행해 계약을 한 바 있으나 매각대금 미납으로 지난 2019년 2월 매매계약이 해제된 바 있어, 시에서도 재매각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진

행해 왔다. 5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 정수장 부지는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제2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청로 6차선 광로와 접해 있고 내초동 역세권 및 산업도로와 인접성 등 제반 여건도 뛰어나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지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췌)경남기업에서 앞으로 정수장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개발할 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인근 지역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서해초교 사거리 선형개선사업 본격

완충녹지 폐지 건 통과

서해초등학교 사거리가 안전한 도로 형태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최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북도에 심의 요청한 완충녹지 폐지 건이 통과됨에 따라, 사거리 선형개선사업을 본격 추진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서해초등학교 사거리는 '어긋난 교차로'로 인해 최근 3년간 4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 다발 구역으로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늘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 속에 살아왔다.

이러한 원인은 송전철탄 부지를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지정하게 되면서 불합리한 사거리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주민, 시의원 등은 도로 형태의 불합리성 해소 요구 및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중화사업 요구로 지난 2018년 시와 한전은 공사 시행 합의했으나, 완충녹지가 폐지 되지 않아

사거리 선형 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폐지 결정이 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해졌다.

폐지되는 녹지에는 인근 근린공원 및 상가 이용자 등에 공공 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 및 주차장으로 대체 결정하였고 내년까지 본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해초교사거리에서 군경묘지까지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철탑과 선하지로 불이의를 받은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최영환 안전건설국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국유재산 관리 우수기관 익산시 부총리 표창 수상

익산시가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부총리 표창과 함께 상금을 수상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국유재산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후속조치 결과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익산시와 경기도 이천시 등 2곳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가 제출한 실적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용도폐지 총 821필지, 14만16,882㎡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5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시는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1만1,673필지, 약 700만㎡ 관리를 위임받아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도폐지, 사용허가, 무상취속 등 국유재산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표창과 함께 수여된 상금 1백만원을 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어서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기탁된 상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으로 지원된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 매일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이용객 주차난 해소

익산 매일시장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면서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시는 지난 24일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를 실시해 최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약 2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됐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137㎡ 부지를 추가 매입했으며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해 총 주차대수 61면으로 조성했다.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유휴어울림 주차관리시스템도 갖췄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